청송심씨 심벌마크

靑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 갑 보
편집인 : 문화이사 심 광 섭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쇄 : 도야인쇄
(02)2268-9903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4년 7월 30일 **제108호**

靑松沈氏三世祖靑華府院君派宗中(會) 臨時總會 開催

日時 2014年 6月 13日 午前 11時30分
場所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
(유림회관 지하 1층 예원홀)
案件 第1號 – 정관개정에 관한 건
第2號 – 임원선출에 관한 건
第3號 – 기타 안건
參席者 總195名

전국에서 참석한 3세조 청화부원군 후손들

의장 심상화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청송심씨청화부원군파종중(회) 임시총회가 정관에 의하여 원만히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第1號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개정에 관한 안건 설명에서 기존 정관은 1965년도에 제정된 정관으로서 그 정관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현격한 시대적 차이가 남에 그동안 변경된 여건과 환경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송심씨대종회와 청화부원군파종중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을 설명하였으며 의결된 개정정관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本 宗中은 靑松沈氏大宗會(이하"大宗會"라 칭한다)에 從屬된 麾下의 宗會로서 靑松沈氏大同世譜(庚申譜와 庚辰譜)에 登載된 안성시 도기동, 당왕동 所在 3世祖靑華府院君(諱:龍) 및 配位墓所와 林野, 位土 등의 財産과 3世祖 靑華府院君 및 配位의 祭享은 大宗會에서 所有, 管理, 奉行함에 따라 이에 隨伴되는 附隨的인 業務를 支援 함을 目的으로 한다.
2. **사업** : 本 宗中은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각 호의 事業을 行한다.
1)大宗會 所有 안성시 당왕동 및 도기동 所在 財産의 管理에 따른 協助 및 支援
2) 大宗會에서 遂行하는 3世祖 靑華府院君 및 配位 祭享奉行에 따른 附隨的인 業務遂行
3) 기타 大宗會의 財産管理에 따른 行政業務 등 附帶業務 支援

第2號 임원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개정정관의 임원구성에 관한 설명 후 임원의 구성은 금일 총회에 전국에서 일가들이 고루 참석하였으므로 지역별로 안배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다른 제안이 없어 지역별로 안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종원들이 구두호천제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습니다.

■임원선출 결과

회 장 : 심상화(대종회 현 상임부회장)
부회장 : 심철유(대종회이사, 안성유사,
전 청화부원군파종중 회장)
감 사 : 심상열 (서울, 대종회감사)
심영주 (경기, 대종회이사)
이 사 : 서울 : 심용규(대종회이사), 심봉섭(대종회이사),
심재신(대종회이사)
경기 : 심진유(대종회이사)
강원 : 심상구(원주, 횡성종회 총무)
충북 : 심성래(대종회이사)
충남 : 심운택(대종회이사)
전북 : 심수영(대종회이사, 전 대종회총무이사)
전남 : 심상우(대종회이사, 판사공종회 회장)
경북 : 심재홍(대종회이사)
경남 : 심동섭(대종회이사)
총 무 : 광섭 (대종회이사)위촉

第3號 기타 안건 상정 후 다른 안건이 없자 재서종원이 안성소재 위토에 대하여 그동안의 등기 및 보존과정에 대한 설명을 자청한 후 준비된 프로젝트 화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함

1. 안성위토는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청송심문의 총유물임을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
2. 안성 경주종인이 "청송심씨종중"명의 토지대장을 교묘하게 청화부원군파종중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등기한 사실에 대한 근거서류를 화면에 제시하면서 상세하게 설명
3. 상익(相翊)(현 내무부차관의 직위)종약소 대표유사께서 총유물을 자신을 포함하여 각 지역마다(청송, 함열, 안성, 청주, 연천) 종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영구히 보존하도록 경신보에 명시한 사실 등을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함
4. 안성 경주종인이 총유물을 청화부원군파종중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제소전화해로 대종회 명의로 이전하는데 날인한 사실 등을 관련증빙을 제시하면서 현재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주종인의 잘못을 지적함
5. 안성 경주종인이 「인수부윤공종회에서도 대종회를 상대로 소송하는 소송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으니, 안효공종회에서도 지원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폭로하고, 오랫동안 대종회임원을 지낸 경주종인이 대종회를 분열시키려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 사태에 대해 경주종인의 잘못을 지적하였음

이후

의장은 안성 경주종인에게 발언권을 주겠다고 하자 경주종인은 "현재 청화부원군파 종중의 임원들이 있는데 별도로 청화부원군파종중 총회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라고 엉뚱한 발언을 한 다음 퇴장하고, 또 다른 의견이 없는지 확인한 후 금일 총회의 회의록이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회의록 감수자를 추천하여 호명 확정한 후 폐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3회 타봉하여 폐회하였습니다.

–총무이사–

2014年度 秋季 享祀 日程表

2014년도 추계 시향이 양력 10월2일(음력 9월9일)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대종회 주관 시향일정표만 우선 게시하며 9월호 종보에 再 안내합니다.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場所
始祖	文林郎公(諱:洪孚)	10. 2	9. 9	목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보광산)
	中臺墓所	10. 2	9. 9	목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산1(중대산)
二	閤門祗侯公(諱:淵)	10. 4	9.11	토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산64–1(남당산)
二	奉翊大夫公(諱:晟)	10.18	9.25	토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31(설단)
三	靑華諱府院君(諱:龍)	10. 6	9.13	월	안성시 당왕동 산19–6(묘전)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場所
三	靑華諱府院君 配位金氏	10. 6	9.13	월	안성시 도기동 산64(묘전)
三	判書公(諱:漣)	10.18	9.25	토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31(설단)
三	上護軍公(諱:鄕)	10.18	9.25	토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31(설단)
四	靑城伯(諱:德符)	10. 8	9.15	수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四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10.10	9.17	금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28 계룡리슈빌@204동104호(재실)

안성 위토관리에 대한 보고

(3세조 청화부원군파종중의 현실을 사실대로 보고 드림으로써 전국 종원의 알 권리 충족과 종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청송심씨대종회의 위토 소유 및 보존 관련사

가. 대종회의 위토 소유 경위

우리 선조님들께서는 관직에 많이 등극하셨고, 국정에 관여하시어 그 업적이 특출하자 국가로부터 많은 사패지를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위토를 지키기 위하여 내무협판(구,내무부차관) 상익(相翊) 현조께서는 대동세보 경신보(1920년)를 발간하시면서 5처지역의 위토를 자세히 명기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청송심씨 총유물(總遺物)을 후손들에게 영구히 물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선조님들께서는 청송심씨 중앙종회인 대종회의 정관에 **5처 지역의 총유물은 등기 명의가 상이(相異) 해도 대종회 소유로 명시하고 대종회에서 소유 관리토록 확고한 조치를 해두셨습니다.**

나. 소유 토지의 명의신탁 사유

그 후 일본이 침략한 후 토지(임야) 조사를 하면서 대종회 명의로는 토지사정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상익(相翊) 종약소 대표유사 주관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각 지역마다 종사에 관심 있는 여러 명의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 하여 사정을 받아 보존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다. 위토관리 방법의 변경

1920년 상익(相翊)현조께서 경신보(庚申譜) 족보에 중앙종회 재산인 5처 묘소 종산과 위토목록을 상세히 명기한 후 경향(京鄕)유사를 두어 5처 묘소를 수호관리하고 유사로 하여금 선영수호(先塋守護)에 종사(從事)토록 하여 종중재산을 관리하며, 산직(山直)과 묘직(墓直)을 감독하고 선영(先塋)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재경(在京)중앙종회에 보고하도록 대종회에서는 유사의 임무를 위촉하여 관리해 오셨습니다. (대종회 40년 약사에서)

2. 3세조 청화부원군(諱 : 龍) 선조님의 위토에 관하여

가. 안성 청화부원군(諱龍) 및 배위 위토의 명의신탁

일제의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세무계에서 조사한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안성군 읍내면 당왕리 소재 토지(대지, 전, 답 등)는 서리 거주 심상순(沈相珣)외 12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았고, 안성군 읍내면 도기리 소재 토지(대지, 전, 답 등)는 서리 거주 심상순(沈相珣)외 8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았으며, 안성군 읍내면 당왕리와 도기리 소재 임야는 경성부 낙원동 거주 심상익(沈相翊) 외 6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이미 서울거주 상익(相翊)(구.내무부차관)종약소 대표유사께서 안성지역의 종인 중 종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았습니다.

나. 평온을 가장했던 대종난(大宗亂)의 시작

그동안 안성위토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모두 대종회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종회에서 100%수령하였으나, 2013년도 수용보상금은 안성지역종회에서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보상금 ₩316,936,000원을 수령하고서 현재까지 대종회로 입금을 거부하고 그 보상금으로 대종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청송심씨대종회(靑松沈氏大宗會)의 입장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종회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종회(大宗會)는 '일가들 간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한 채 안성지역 종인들과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경주(庚周)종인을 맹신하는 2-3인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지금까지 21건의 소송이 진행되어 12건이 종료되었으며, 9건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유추되는 현실입니다.

4. 종재실사로 파악된 안성 위토관리의 실상

안성지역에서 청화부원군 선조님과 배위 위토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경주(庚周)종인이 대종회에서 유사 위촉을 받아 대종회위토를 관리하면서 대종회에는 보고하지 않고 많은 위토수입을 불분명하게 처리한 부분이 상당부문 발견되었으며, 20년 전에 이미 유사직을 그만 두었는데도 아직까지 유사로 행세하면서 대종회 위토관리를 위임받은 양 대종회 재산관리에 관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성의 종사를 특정인 한 사람에게 장기간 위임한 대종회 집행부에도 과실이 있었으나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안성토지에 대한 경주종인의 과거 발언과 근간의 사태

가. 과거 경주종인의 황당한 주장

1976년 1월 25일 개최된 대종회 제14회 이사회에서 경주종인은 "대종회에서 명의신탁한 명의수탁자들을 심방하여 대종회명의로 이전 하는 것을 자신이 설득해서 동의를 얻었다"는 생색성의 발언을 하였고, 그 후 대종회는 제소전화해로 전·답을 대종회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고 발언한 회의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 당시 대종회로 명의 이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

나. 근간의 사태

안성위토 중 전·답은 이미 40년 전에 안성 경주종인 주도하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旣 대종회명의로 명의이전 하였고 그 공로로 표창까지 받았음에도 2014년도에 대종회를 상대로 청화부원군파종중 명의로 다시 이전을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 안성 경주(庚周)종인과 호섭(虎燮)종인은 말해야 한다!

2014년 2월 27일 청화부원군파종중 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종회를 상대로 소송자금을 마련한다고 청화부원군 양위(兩位)분의 묘역임야(1만2천평)를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했던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본 내용에 대한 관련서류는 대종회에서 확보·보관하고 있으며 대종회에서 청화부원군파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한 임야를 2014년 4월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하여 대종회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종산(宗山)이 안성지역 몇몇 종인들에 의해 일시에 소실(消失)될 수도 있었던 대형종난(大形宗亂)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6. 안성 경주(庚周)종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2014년 5월 21일 20여 명이 모인 안효공종회운영위원회의 석상에서 "대종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하는데 돈이 없다. 인수부윤공종회에서도 재판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고 발언하면서 안효공종회에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인수부윤공종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이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대종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구걸성 모금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천인공노 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경주종인의 행태에 대해 천상계(天上界)에 계시는 상익(相翊) 현조님과 성택, 명구 전 대종회회장님께서 격노(激怒)하실 모습이 떠오릅니다.

경주종인은 이제라도 뉘우치고 선조님께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합니다.

전국 종원 여러분 !

선조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총유물이 소실(消失)되는 사태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대종회는 위토보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종회를 분열시키려는 일부종인들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청 송 심 씨 대 종 회

사진설명

① 7월25일(금) 섭씨37도 기온 속에서 대종회 상임이사 안성 3세조청화부원군 묘소 잡초제거(촬영/신임 광섭 문화이사)

② 안성 대종회 임야에 경주종인 아들이 1만5천여 평에 무단으로 구찌뽕을 심은 사진(년 1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나 무단 점령하여 불법경작으로 대종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현장사진

③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모내기를 마친 안성 위토답(位土畓)정경. 푸르른 벼를 보면서 철유 유사. 흥주 관장의 땀방울이 떠오른다.

교육·문화코너

청송심씨 대동보 항렬(大同譜 行列)

19世	20世	21世	22世	23世	24世	25世	26世	27世	28世	29世	30世	31世	32世
○之	能○	宜○	○澤	相○	○燮	載○	○輔	揆○	○用	寧○	○起	章○	○厚
갈지	능할 능	마땅할의	못택	서로상	불꽃섭	실을재	도울보	헤아릴규	쓸용	편안할영	일어날기	글장	두터울후
33世	**34世**	**35世**	**36世**	**37世**	**38世**	**39世**	**40世**	**41世**	**42世**	**43世**	**44世**	**45世**	
亮○	○南	茂○	○鎔	漢○	○根	炯○	○均	鎭○	○淳	東○	○炳	○坤	
밝을량	남녘남	우거질무	녹일용	한수한	뿌리근	빛날형	고를균	진압할 진	순박할 순	동녘동	밝을병	땅곤	

宗訓 공모 안내

대종회에서는 우리 청송심문의 윤리적 지침으로써 종원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덕목을 간명하게 표현한 宗訓을 공모합니다.

▶ 기한 : 2014년 10월 30일
▶ 방법 : 대종회 팩스 또는 우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당선자 포상 : 족보, 수권속편, 종보축쇄판 II 각 1질
▶ 양식 : 첨부파일

青松沈氏 宗訓 應募 申請書		
성 명		
5世祖 기준		
제안宗訓		
제안說明		
연락처	전화	
	주소	

※작성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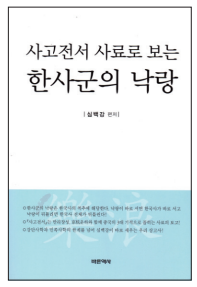
青松沈氏 宗訓 應募 申請書	
성 명	沈 ○ ○
5世祖 기준	○○○파
제안宗訓	崇祖 . 勤勉. 和合
제안說明	❶ 宗中의 目的→ **崇祖** ❷ 四世祖 청성백께서 後孫들에게 當付하신 生活信條의 말씀→ **勤勉** ❸ 종친의 친목도모→ **和合**
연락처 전화	
주소	

Book 신간안내

백 강
대종회 이사
종보편집위원
역사학 박사
민족문화연구원장

〈사고전서 사료로 보는 한사군의 낙랑〉

사고전서는 만리장성, 북경-항주운하와 함께 중국의 3대 기적으로 꼽히는 사료의 보고이다. 이 책은 한사군의 낙랑, 고조선과 고구려의 발상지와 수도, 고조선의 서쪽 국경,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과 같은 한국사상의 쟁점이 되는 핵심과제들을 사고전서 사료를 근거로 그 진실을 밝혔다. 앞으로 중국 동북공정의 대응은 물론,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한국사 교과서를 새로 쓰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책이다.



삶의 유머

운전사가 된 교황

어느 날 교황은 정말로 운전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을 데리러 온 운전수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다. 너무 신난 교황은 속력을 높였고 운전수는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결국 과속을 하여 경찰에게 쫓기게 되었다.

운전수는 망연자실해서 자신의 운전면허가 사라질 것을 예상하며 뒷 자석에 기대어 있었다. 교황은 여유롭게 창문을 내렸고, 경찰은 깜짝 놀라며 오토바이로 돌아가서 무전기로 경찰청장을 불렀다.

"저기 청장님 어떤 차가 과속을 했는데 엄청난 거물입니다."
"그렇다면 어서 잡아야지 공정하지 않은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거물이길래 그래? 대통령이라도 되?"
"아니요 훨씬 더 거물인것 같습니다"
"누군데 그래?"
"누군진 모르지만 교황을 운전사로 고용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인듯 합니다."

– 대종회 관리부장 –

좋은 글

아버지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바닷고기가 있습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숫놈이 그 알을 입에 담아 부화시킵니다.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점점 쇠약해지고, 급기야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는 기력을 다 잃어 죽고 맙니다. 숫놈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 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으면 그만 입니다. 하지만 숫놈은 죽음을 뛰어 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는 그 무거운 자리!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어깨를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왠지 부끄럽고 미안한 맘입니다.

이제 누구의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의 묵직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남자들이여! 가정에서 내 자리가 적어지고 사회에서 어깨의 짐이 무거워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막막하고 힘들어도~

당신은 믿음직한 아들이었고 든든한 남편이었으며 위대한 아버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family)"의 어원을 아십니까 ?

"Family"의 어원은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 합니다!"

즉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글자들을 합성한 것이랍니다.

진정 '가족' 이라는 말은 생각만해도…, 눈물이 핑 도는 따스한 단어 입니다 !

우리 모두 가정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가 늘 함께 하시길…

자료제공 : 상은 종보편집위원회 회장

종/인/탐/방

재 현(載鉉)
대종손(大宗孫)
대종회 이사

아침 일찍 前 문화이사와 함께 강원도 원주 대종가 종회인 도총제공종회 민섭 회장댁으로 향하였다. 문화이사로 임명된지 20여일 만에 우리 심문의 대종손인 재현(載鉉) 일가를 탐방하기 위해서였다.

재현 대종손은 종보 제97호(2012년 9월호)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문화이사의 중책을 부여받고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禮義)라 생각했다.

출발한지 2시간여 만에 대종가 도총제공종회에 도착하니 재현 대종손과 민섭 도총제공 회장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민섭 회장님은 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지만 재현 대종손은 5처 묘소 춘·추 향사 시 헌관으로 헌작 시에 먼발치서 본적은 있으나 친히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다. 서로 명함을 건네고 정중히 인사를 나누었다.

종부(宗婦)께서 정성껏 차를 대접해 주신다. 대종손이나 종부 하나하나의 언행(言行)에서 문중의 법도와 전통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었다. 서로 차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대종손으로서 종가의 제사나 예의범절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한편으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실과 근면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견지(堅持)하기 위해 항상 마음을 다잡는다는 대종손의 각오를 들으면서, 역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명언을 떠올리며 흐뭇함을 느꼈다.

무거운 책임과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대종손은 우리 문중에서 존중받아 마땅하며 대종회에서도 대종손에 걸맞는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대종손 탐방 시 참석종인과 함께 기념촬영.
앞줄 왼쪽 두 번째 재현 종손

아무리 사회가 변하여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은 대대손손 이어져야 하며 대종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예우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심문의 자존심이며 자랑인 재현 대종손!

항상 푸른 소나무처럼 지조(志操)를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20일
신임문화이사 심광섭(沈光燮)

靑松沈氏宗孫世系圖

1세 洪孚 → 2세 淵 → 3세 龍 → 4세 德符 → 5세 仁鳳 → 6세 灝 → 7세 淑 → 8세 瓘 → 9세 自淸 → 10세 承善 → 11세 ① 詠→(无后) ② 泗→(无后) ❸ 湊→장남(瑾)

12세 瑾 → 13세 潤身 → 14세 師顔 → 15세 宗良 → 16세 鑠 → 17세 慶 → 18세 柑協 → 19세 泰煥 → 20세 能宗 → 21세 宜老 → 22세 元澤 → 23세 相和 → 24세 ① 興燮→(无后) ❷ 敏燮→❶ 載鉉(出系伯父) ② 載興 ③ 泰燮 ④ 弘燮 → 25세 載鉉(宗孫)

문화이사 발령을 받으며

光 燮

7월1일부로 신임 문화이사로 중책을 부여 받은 24世 공숙공파 광섭(光燮)입니다. 청송심씨대종회 문화이사라는 중책을 어떻게 잘 수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뇌에 차 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열과 성으로 우리 심문(沈門)이 명문가다운 명문가로 거듭나는 과정에 일조하며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훌륭하게 종보편집을 해 오신 전임 재서 문화이사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선조님들께 예를 다함에 목표를 둔다면 발전해 가는 문명의 이기도 적절히 이용하여 젊은이들이 좀더 가까운 곳에서 쉽게 우리 선조님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접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이야기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차 모든 서적이나 서류는 옛 문헌의 뜻과 범절이 훼손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글화 작업을 거쳐 젊은 세대가 쉽게 이해하며 참여할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변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옛 문화가 변질되지 않도록 받들고 또 한편으로는 빠르게 변해가는 세태에 맞춰나가겠습니다.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일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유익하고 건전한 청송심문의 소식지를 채워보겠아오니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청송심씨대종회가 중앙종회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고 전국의 수많은 일가들과, 지파 또는 지역종회와의 꾸준한 소통의 길을 열어 놓는 징검다리 역할에도 충실할 것입니다.

종원 누구나 종사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부담 없이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시작된 장학사업이 융성하여 후손들의 인재양성에도 커다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천명하면서 전국 일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1
신임문화이사 **광섭 拜上**

문화이사 3년을 회고하면서…

載 緖

존경하는 前 의락 회장님으로부터 문화이사의 중책(重責)을 보임(補任)받고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문화업무를 맡은 지 어언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대종회의 문화업무를 책임감 하나로 매진(邁進)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일가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보편집위원회 회장님이신 상은 현 고문님, 상렬감사님, 웅섭, 동섭 회장님, 수영 前 총무이사님 재석, 석문 이사님 등 많은 편집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재삼 올립니다.

회고 하건대 미력하나마 보임(補任) 기간 중 전국 종인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자 종회탐방을 실시하였고, 종인소개, 모범종회 소개, 일가들의 단합모임, 교육, 문화, 관향코너 등 종보에 고정코너를 신설하고 전국일가 여러분의 동향(動向)을 소개하여 우리는 한 뿌리라는 일체감과 명문가 후예라는 자부심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큰 종회위주의 편집을 탈피하고, 전국에 산재한 소종회(小宗會)활동까지도 소외(疏外)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 문화이사로 보임(補任)받았을 시는 연간 종보찬조금이 1천5백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3천5백만 원을 넘고 있는데 대하여 청송심문의 소식지가 일취월장(日就月將) 하는 가운데 전국 일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뿌듯한 마음 벅차오릅니다. 또한, 문화업무 수행 중 대종회 심볼마크를 제가 칼러로 변경 제안한 것이 채택 되었을 때의 보람과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미흡한 점도 많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종보편집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해량(海諒)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하신 신임 갑보 회장님께서는 신임문화이사로 종사에 박식(博識)하시고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광섭(光燮)이사를 위촉 하셨습니다. 참으로 잘 된 일입니다. 신임 광섭 문화이사께서 앞으로 저의 부족했던 점을 보강(補强)하여 대종회 문화업무의 창달에 크게 기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문화이사 업무를 마치고 저의 전공인 경영학을 살려 대종회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회계업무수행으로 대종회 재무구조 개선에 이바지 하려합니다.

인생은 유한(有限)하나 우리 「청송심씨대종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또한 「청송심씨종보」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일

現 재무이사, 前 문화이사 **載緖**

함열 묘지 이장 권고 공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산64-1번지의 임야는 청송심씨대종회 소유의 임야이고, 이 산에는 청송심씨2세조 합문지후공 묘소가 있는 묘산(墓山)임을 청송심씨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이 묘산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지금은 공동묘지화가 되어 가고 있다할까 참으로 선조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 당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종회 집행부의 잘못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산에 불법묘지가 수없이 설치되고 있고, 전답은 아무나 갈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인행세를 해 온 곳이 바로 함열의 청송심씨대종회 종토임을 2013년도 토지실사 당시 알게 되어, 지난 7월10일 대종회 상임이사 모두가 현지를 답사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니, 연고자들께서는 대종회와 협의하여 좋은 방법으로 선조님을 모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기 위해 지면을 할애합니다.

주산에 설치된 불법묘지는 고 심신덕(字 상옥)님 (설치일 2003년 5월 8일), 산림훼손 약150평, 고 김해김씨 (2001년 10월 3일 연고자 심은하 심재욱 등), 명필 고 심상오님(설치일 2006년 4월 26일 연고자 규섭, 장섭 등), 이하 묘역조성 및 가묘 약 300여평, 고 심재일(설치일 2011년 5월, 연고자 심성보, 심현보 등), 고 심을섭, 고 심갑섭, (설치일 2009년 윤5월, 연고자 심재봉, 심재욱 등) 등 400여평, 고 심석택, 고 심상마 (고 심선택의 자, 설치일 2009년 윤 5월, 연고자 심을섭, 심갑섭 심재봉, 심재욱 등의 가족묘지 조성지 임) 고 심재봉 등 가족묘역 조성 등 500여 평이 불법묘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고자께서는 2014. 8. 30 까지 청송심씨대종회 연락처 02-2267-7857, 또는 2267-9339 로 연락하시어 슬기로운 해결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라오며, 지정기일까지 연락이 없으신 분들의 묘지는 무연고 묘지로 인정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관계관청에 고발하여 장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산림훼손혐의로 처벌받도록 조치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향후 연고자에게 청구하는 절차에 착수하겠음을 공지해 드리오며 참고로 사진을 공개합니다.

– 2014. 7. 1 총무이사 –

〈불법매장 사진 중 일부〉

故 재열(載烈) 문화이사님을 그리며…

前 문화이사 載緖

세월은 흘러 재열 문화이사님께서 홀연히 저희들 곁을 떠나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재열 문화이사님! 천상계(天上界)에서는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아마 지금도 초대 성택, 2대 명구, 3대 두섭 회장님들과 만나 우리 청송심씨대종회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겠지요.

우리 대종회는 역대회장님들과 함께 지난 43년간 대종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으신 갑보 부회장님께서 훌륭하신 역대 회장님의 바톤을 넘겨받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열문화 이사님에 대한 사모의 정을 누를 수가 없어 새로운 집행부 상임이사들과 함께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잡풀을 제거하고 주과포(酒果脯)로 영전(靈前)에 예(禮)를 올렸습니다. 이사님의 따듯한 온기와 함께 이사님과 함께한 날들이 주마등(走馬燈)처럼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이사님은 참으로 대종회의 보배 이셨습니다. 대동세보(경진보)와 대종회 40년 약사의 성공적인 편찬, 종보 발행, 청송회관 건축 등 수많은 일들을 훌륭하게 해 내셨습니다. 특히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총유물(總遺物)을 지키기 위해 전국을 돌며 종재실사를 하시고 위토대장을 만드신 일 등은 대종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불초(不肖) 제가 문화이사로 보임(補任)되었을 때

故 재열문화이사님께 헌잔 후 대종회 상임이사

건강이 악화되어 찬경회관 5층 계단도 몇 번이나 쉬시며 힘겹게 올라 오시면서도 부족한 저를 지도해 주시려고 매일 출근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사님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대쪽같이 올곧은 성품을 지니셨던 재열 문화이사님께서는 타계하시기 얼마전에 "안성에 청화부원군 양위 재실이 있는데도 안성의 일부 종인이 나를 찾아와서 청화부원군배위 재실건축을 하려 하는데 대종회에 지원성 발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당한 부탁을 받고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비분강개(悲憤慷慨)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으로 원로다운 옳으신 질타셨습니다. 4세조 장남이신 정안공(定安公)께서는 아직도 재실이 없으신데 3세조 내외분의 재실을 따로 따로 건립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요.

지난날 이룩하신 수많은 숭고한 업적은 대종회 역사에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이제 대종회는 이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정도(正道)에 서서 모든 일을 원칙대로 해나가고 있으며, 종사에 흑심을 품은 종인들은 이제 종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종회와 전국 종인들께서 학수고대((鶴首苦待)하던 안성임야 명의신탁 해지도 회장단의 단호한 의지로 대종회 명의로 이전 완료 하였습니다. 초대 성택 회장님과 명구회장님께서 그리도 무던히 노력하셨던 일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고(告)합니다. 천상에 계신 재열 이사님! 성택, 명구회장님과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재열 문화이사님의 불같은 열정을 사모(思慕)하는 저는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대종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다짐합니다. 그 길은 사심없이 대종회 발전에 헌신하신 재열 문화이사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운 재열 이사님! 꿈속에서라도 뵙고 싶은 그리움이 몰려옵니다. 생전에 그토록 노심초사 하시던 종사는 이제 저희들에게 맡기셨으니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디 천상에서 영생을 누리시옵소서… 2014년 7월 25일

–故 재열문화이사님 묘소를 다녀와서–

종회탐방 시리즈 (16)

제16회 5세조 판사공(휘:義龜)종회 탐방기

상우(相祐)
5세조 판사공회장
대종회이사

■**탐방일** : 2014년 7월12일
■**탐방종회** : 5세조 판사공종회
(전남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 1315번지)
■**탐 방 원** : 상화 상임부회장/광섭 문화이사/재서 재무이사

문화이사로 발령을 받고 종회탐방으로 7월12일 토요일 새벽,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니 아직 도로는 한산한 편이지만 오늘도 날씨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게 더울 것 같은 기세다.

예약된 KTX 열차를 타기위해 용산역에 도착하니 벌써 상화 부회장님과 재서 재무이사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무척 부지런하신 분들이라는 생각과 대종회를 위하는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열차로 광주 송정역에 도착하니 벌써 11시가 넘어 있었다. 부지런히 역 대합실로 향하니 전라남도에 사시는 상록 대종회 부회장님과 5세조 판사공 휘 의구(諱 義龜) 종회 회장이신 상우(相祐)회장님 내외분이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서둘러 송정역을 출발하였는데 재실이 있는 곳까지는 약50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광주의 명산 무등산을 휘돌아 보성군으로 접어들었을 때, 상우 회장님께서 재실이 있는 인근에서 판사공 임원님들과 종원들께서 모여 계시니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재실을 들러 참배하기로 시간 계획이 짜여 있다는 안내를 받고 식당에 도착하였다.

15여 명의 종원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참으로 반갑게 우리들을 맞아주심에 또 한번 일가임을 실감하고 심문으로 태어나기를 잘했다는 충만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점심식사 전 판사공 상우(相祐)회장님의 주재로 일가들 간의 간단한 인사 및 소개시간을 가졌고, 메뉴는 자연산 메기 매운탕이었는데 전라도 지방을 몇 번 가보지 못한 본인으로서는 새로운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 후 차로 잠깐을 이동하여 판사공 선조님을 모신 재실 죽산재(竹山齋)에 도착하였는데, 후손이 많지 않은 5세조 휘 의구(諱 義龜) 판사공 선조님의 재실이 너무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음에 일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준비된 주과포(酒果浦)를 올리고 엄숙한 마음으로 참배를 한 후, 판사공 상우(相祐) 회장님으로부터 5세조 휘 의구(諱 義龜) 선조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5세조 판사공 휘 의구(諱 義龜) 종회

1. 연혁

판사공종회는 조선시대부터 종손을 중심으로 도유사, 유사를 선출하여 관리해 오다가 1985년 가을에 보성 노루목 선산하에 죽산재(竹山齋)를 건립하여(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 1315번지) 묘소관리 및 제향을 모시면서 부족한 종재로도 정성을 다하여 선조님을 모시고 있다.

2. 보성에 입향조의 행적과 파조 및 설단

판사공의 장남이신 좌랑공(諱 溝)께서 1448년 숙부이신 안효공(諱 溫)의 참화를 부당하다고 직언하다가 전남 보성군 복내면으로 유배되었고, 1453년에 해배되었으나 단종이 세조에게 손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방산에 들어가 은거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셨다. 1493년에 별세하시자 성종이 예관을 보내 치제하고 승정원 좌승지로 추증하였다. 1957년 묘소 아래에 죽산재(竹山齋)를 짓고 유덕을 추모하고 시제를 봉행하고 있다.

파조 판사공(諱 義龜)은 4세조 청성백(諱 德符)의 둘째 아드님으로 운곡 원천석의 문하에서 태종과 동문수학하였으며,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 고려 말에 음관으로 등용되어 조선 초에 판의금부사에 재직하시면서 조정의 기강을 확립하였으나, 소인배들의 질시로 지평현(양평)에 은거하면서 금서로 소일하시다가 여생을 마치셨다. 묘소는 원래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번지 4세조 청성백 묘소 아래에 모셨다는 기록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병란으로 인해 실전하여 애통하기 그지없어 지금 보성 죽산재 옆에 설단을 건립하여 매년 음력 10월15일 시향을 봉행하고 있다.

3. 판사공의 후손 현황과 분포도

판사공의 장남이신 6세조 좌랑공(諱 溝)께서 보성 노루목에서 두 아들 첨정 유눌과 참봉 유강을 함께 시거하여 적덕하니 자손이 번창하여 오늘날 보성, 순천, 여수, 장흥 등지에 약300여 호 약1500여 명의 후손이 살고 있다.

4. 종회 임원의 구성

고문 : 정섭, 상식, 동수, 진열
회장 : 초대 회장 경택, 2대 회장 상영, 3대 회장 상운, 4대 회장 상권, 5대 회장 철원, 6대 회장 상식, 7대 회장 정섭, 8대 現 회장 상우
부회장 : 상백 **총무** : 금섭
부총무 : 재송 **섭외이사** : 상민
이사 : 수택, 상욱, 준섭, 범섭, 의섭

5. 회의기구

정기총회는 매년10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중요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여 결의한다.

6. 종원들에게 바람

1) 모두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니 현재대로만 유지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

2) 각종 행사 때 젊은 층들이 좀 더 참석하여 면면이 이어온 종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7. 청송심씨대종회에 대한 바람

1) 장학사업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더욱더 발전시켜 후학 양성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

2) 말로만 듣던 청송심씨대종회 종보를 통해 중앙종회와 지방의 파종회, 지역종회와 소통의 길이 만들어져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되며 더욱 발전하는 청송심씨대종회가 타성의 종친회보다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것임을 확신하며 현 대종회 상임이사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3) 저희가 모시는 중시조 판사공의 부친이시기도 하지만 제향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것은 4세조 청성백 선조님의 위상이나 명성에 걸맞는 재실을 하나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4) 현재 안성문제는 대종회에서 현재와 같이 원칙대로 강력히 대처하여 선조님께서 물려주신 총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탐방후기〉

많지 않은 판사공 후손들이 잘 단합되어 조상님을 극진히 모시고 임원님들과 일가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이 모여 탐방원들을 환대해 주시고 넉넉지 않은 재정에도 거금의 종보찬조금을 후원해 주신 상우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종회 상록부회장님과 탐방 후 소종회 순천 종회의 상식고문님 일섭회장님, 상진일가님께서 순천정원박람회도 안내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대종회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책임을 다짐하면서 종회탐방을 마쳤다.

2014년 7월 12일
신임 대종회 문화이사 광섭

차기 종회탐방 예정

9월호 (종보 109호) – 9월중순 11世선무공신(諱:友信)파 포천종회(회장 : 재호)
11월호(종보 110호) – 10월하순 당진종회(회장 : 영택)
2015년 1월호(종보111호)– 1월중순 정랑공종회(諱 智謙) (회장 : 재성)

참배 후 죽산재 앞에서의 기념촬영 좌측 3번째 상우 판사공 회장, 4번째 상록 대종회 부회장, 5번째 정섭 판사공 종손, 6번째 상우 판사공 회장 부인, 상화 대종회 상임부회장

5세조판사공 휘 의구(諱:義龜)설단에 상록부회장님 집례로 상화 상임부회장 헌잔

종회탐방 후 風送亭에서 종회탐방 참석 일가간 환담전경

종회별(과거 12년간) 찬조 현황

2002년 ~ 2014년 7월 25일 현재

종회별 찬조 내역을 감사의 뜻으로 확인해 주시고, 성원을 계속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종회는(●)으로 표시하였으며, 하기 내용 중 이상이 있는 종회는 대종회 재무담당에 게 필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종회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장학	찬조여부 종보
봉익공파	봉익공철원종회(회장:상하)	2	晟	●	●
악은공파	악은공종회(회장:의칠)	4	元苻	●	●
	현령공종회(회장:의조)	5	天柱	●	●
	현령공경남종회(회장:재화)	5	天柱	●	●
	묵곡판사공종회(회장:동섭)	8	襲	●	●
도총제공파	도총제공종회(회장:민섭)	5	仁鳳	●	●
판사공파	판사공종회(회장:상우)	5	義龜	●	●
지성주사공파	지성주사공종회(회장:기찬)	5	繼年	●	●
인수부윤공파	인수부윤공종회(회장:정구)	5	澄		
인수부윤공파	곡성종회	9	淳		
	정랑공종회	9	澧		
	내금위종회	11	滉	●	●
	절도사공원강종회	12	元剛	●	●
	군수공종회	13	俠		
	우발종회	13	儐		
	참판공종회	14	之治		
	적공파종회	15	楠		
	청평도위공종회	15	益顯		
	좌승지공종회	15	楠		
	통천공종회	16	廷로		
	동지돈령공종회	16	廷紀		
	함흥공종회	16	廷最	●	
	현재공종회	17	師正		
	성천공파오남종회	18	謙鎭		
	익모공종회	20	益模		●
	노학공종회	21	魯學		
	청만공파성신공종회	22	遠朋		
안효공파	안효공종회(회장:명옥)	5	溫		●
안효공파	영중추공	6	濬		
안효공파 영중추공파	수사공종회	10	巖		●
	임천공종회	10	鎭		
	진사공파종회	11	友俊		
	청계부원군	11	友勝		
	군자감주부공파종회	12	沃		
	좌승지공숙임피종회	12	淑	●	●
	수찬공파고적종회	12	譚		●
	용난재공종회	13	得進		
안효공파	공숙공종중	6	濬	●	●
안효공파 공숙공파	이경공종회	7	瀚		●
	판관공종회	7	浚	●	●
	사인공종회	8	順門		
	수찬공종회	9	達源		●
	효창공종회	9	逢源		●
안효공파 공숙공파	좌의정공종회	9	通源		●
	좌의정공종회	9	通源		●
	정수종회	10	嶷		●
	첨정공종회	10	鎡	●	
	곡산공종회	10	鏦	●	●
	청양군종회	11	義謙		
	풍덕공파종회	11	筍		●
	생원공파	11	蓉		●
	광주금당산종회	11	友賢		●
	선무공신종회	11	友信		●
	선무공신파포천종회	11	友信		●
	사어공파종회	11	友寬		●
	도사공파종회	11	友仁		●
	성천부사공종회	11	禮謙		●
	정랑공파종회	11	智謙		●
	부평공종회	11	信謙		
	충익공종회	11	忠謙	●	●
	신천공종회	11	孝謙	●	●
	신천공파춘천종회	11	〃	●	●
	수운판관공종회	11	悌謙	●	●
	찰방공파종회	12	仁祺		●
안효공파	정언공파진천월촌종회	12	仁禧	●	●
	수운판관공파마산소종중회	12	協	●	●
	김포군수공파종회	12	憬		●
	참판공종회	13	廷世		
	선교랑파	13	廷熙		
	정강공마산종회	13	廷江		●
	광주부윤공선산종회	14	총		●
	장사랑공파종회	14	松直		●
	신천공김포현공종회	14	현		●
	무숙공파종회	14	松茂		●
	증참판공종회	15	漢弼		
	신천공지경종회	15	壽漸		
	창순공파종중	16	昌淳	●	●
	양순공파종회	16	養淳		
	청헌공종회	17	宅賢		
	사복시정공	18	鐫	●	●
	만중공종회	18	萬衆		●
	통훈대부공종회	18	鎰		
	생원공파법곳종중	19	燁之	●	●
	정랑공마산종회	19	宣之		
정이공파	정이공(어비리)종회	6	決		●
정이공파	정이공파부사공종회	11	源海	●	●

▶지역종회/종친회

지역	종회명	찬조여부 장학	찬조여부 종보
서울	서서울종회		●
	동서울종회		●
	영등포종친회		●
	청송골프회		●
	청심회	●	●
부산	부산종회	●	●
	부산청송회		●
	부산청년회		●
대구	대구종회	●	●
	대구 청 · 장년회		●
인천	인천종회	●	●
	청인회		●
광주	광주청광회	●	●
대전	대전 · 충남지구종회		●
	대전화수회	●	●
울산	울산청년회		
	울산청송회		●
강원	삼척종회	●	
	원주 · 횡성종회		●
	금화종회		
	춘천종회		●
경기	김포종회	●	●
	김포하성종회		●
	부천종회		
	성남종회		
	안성종회		●
	장호원종회		
	이천종회	●	●
	용인종회		
충북	제천 · 단양종회		
	증평종회		
	청주종회	●	●
	청주청송회		●
충남	공주종회		
	당진종회		●
	부여종회		
전북	전북종회	●	●
	전북청송회		●
	익산종회	●	●
	정 · 고 · 부 화수회		●
	임 · 순 · 남종회		
전남	순천종회	●	●
	함평종회		●
	여수종친회	●	●
경북	구미종회	●	●
	성주종회		●
	안동종친회	●	●
	안동청년회		●
	안동오평종친회		
	김천지역종회		●
	청송청년회	●	●
경남	고성군종친회		●
	진주종회		●
	통영종회		●
	함안종회		●
	합천종회		●
제주	제주종회		
해외	미주종회		
	일본종회		●
	캐나다종회	●	●
인터넷	인터넷종친회		

지로 종보찬조 재후 상윤 상귀 현보 재인 재오 효담 효식 수보 준섭 재현 윤근 화섭 상남 장식 춘일 재운 민섭 청송심씨무 재구 철보 웅섭 상복 재국 창보 유섭 상온 정웅 유택 완준 재춘 윤영 재철 재길 재철 재춘 기오 재용 대섭 우하 현성 만복 재덕 흥섭 상준 상만 상민 양보 일석 규문 상영 경섭 재선 항래 상익 재수 재학 완택 우삼 영보 도윤 기관 정보 길택 기혁 해섭 영희 재범 상협 재동 상덕 기천 경석 우권 상의 한석 재성 재관 재근 원중 재홍 승규 향보 정섭 운섭 재원 우형 재국 갑식 오섭 완섭 백옥 상근 순보 재수 재충 재철 종래 정철 상연 재철 상도 성구 재춘 우인 정호 상구 태식 상호 연수 용택 의석 규훈 재일 춘보 원식 해철 상덕 선보 규억 춘식 전택 재신 재관 익순 현섭 원길 래형 보성 화복 윤도 재규 덕섭 우인 동원 재학 성보 만섭 재성 재흥 진섭 진유 덕용 원섭 상록 상덕 광평 승진 재철 유섭 승보 재영 도섭 종섭 상욱 길섭 상동 충일 완섭 병섭 대택 항석 장일 진식 상순 영규 기석 우승 인구 태섭 재복 재학 상천 백규 상국 정식 심일 경모 대섭 재일 상락 상필 유섭 광보 재완 형섭 규선 경식 상완 정택 원보 선래 상선 서섭 상춘 정용 재후 응호 재현 칠섭 정식 인섭 종익 정선 웅섭 윤섭 순자 경용 인보 완보 재숙 남진 인보 도석 재원 만섭 우섭 상원 우찬 상렬 용출 재희 재덕 재덕 무석 진용 규철 화섭 재문 판섭 주섭 재문 영섭 조홍 영수 흥구 기섭 상금 원섭 상열 명섭 춘섭 기섭 준섭 한준 우섭 상하 재익 해용 원석 원섭 재영 백섭 일선 양섭 상은 주보 용진 기송 상영 태섭 순용 군섭 광섭 재환 성구 한섭 원보 만택 헌규 영보 평택 상우 우철 재복 태규 우리원룸 영식 재옥 재덕 길섭 우섭 규섭 재안 영홍 규익 재번 우학 상학 주한 오택 재웅 호택 태식 영섭 재수 태식 건섭 성규 용보 정학 영보 재용 진섭 상기 정식 능봉 규원 순보 강식 상찬 정구 규양 재창 상흠 재전 규익 상선 우석 정식 상옥 재석 용진 영섭 재명 선규 기섭 희수 보일 재만 희용 재원 기연 인학 규승 상승 정택 언녕 인섭 재춘 보석 상만 성택 재호 홍섭 우대 태보 희택 수용 상익 상진 길섭 이섭 기백 하섭 재영 재선 창수 창용 호섭 재권 상구 재봉 재춘 영택 언도 우만 재범 정섭 범구 재수 재동 상한 재면 연옥 우현 상철 재복 재운 재석 정의 홍섭 재철 동엽 재도 재수 중섭 창용 영민 언선 재기 남섭 재남 창호 영섭 운영 홍식 상태 춘자 종식 상선 상원 윤섭 남식 영보 희보 경보 정보 영식 병섭 철구 민식 윤섭 진섭 대식 갑진 철유 흥구 선근 범섭 웅섭 현보 기보 극택 기영 광식 만용 재돈 인보 란수 영무

종보찬조

1,000,000 공숙공종중(회장:웅섭)
400,000 광주부윤공선산종회(회장:우정)
310,000 언태(대종회총무이사)
300,000 부산종회(회장:상균), 판사공종회(회장:상우)
200,000 선무공신파포천종회(회장:재호), 정현(서울)
100,000 문석(경기), 언촌(경기), 경보(경북)
60,000 강채(전남)
50,000 양섭(과천), 현석(대구), 형석(경기), 효식(서울), 종방(충남)
20,000 경남(서울), 준보(부산)
10,000 혁규(경기), 민성(경북), 재복(서울), 승권(강원), 상부(서울), 관섭(서울)

장학찬조

500,000 캐나다종회(회장:상욱)
200,000 혁규(경기)

이사회비

50,000 우하(서울), 양섭(과천), 현석(대구), 문석(경기), 재호(경북), 언태(경기), 재윤(경기), 주섭(전북)

2014년 예산 대 실적

〈2014. 7. 25〉 단위:원

구 분	예 산	실 적	달성율(%)
임원회비	17,600,000	10,200,000	58
장학기금	2,000,000,000	168,120,000	8

■ 50만원 이상 종보 · 장학금 찬조 종인(2회) 사진게재

공숙공종중회장 **(웅섭)**
종보찬조 100만원 2014년7월

캐나다장학회장 **(상욱)**
장학찬조 50만원 2014년7월

대종회회장 **(갑보)**
종보찬조 200만원 2014년5월

대종회부회장 **(일용)**
종보찬조 1,500만원 2014년4,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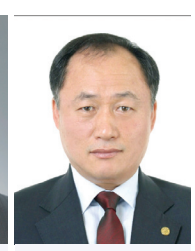
사복시정공종회회장 **(재봉)**
종보찬조 300만원 2014년4,5월

대종회문화이사 **(광섭)**
종보찬조 100만원 2014년4월

대종회재무이사 **(재서)**
장학찬조 50만원 2014년5월

판사공파묵곡종회 **(동섭)**
종보찬조 50만원 2014년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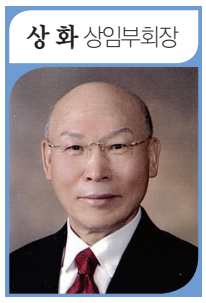
사복시정공종회원 **(홍보)**
장학찬조 50만원 2014년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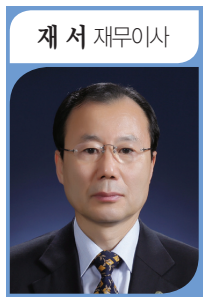
원주횡성종회총무 **(상구)**
장학찬조 50만원 2014년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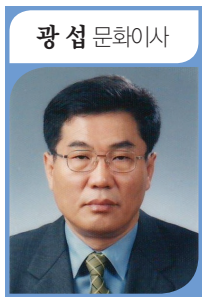
대종회 집행부

갑 보 대종회회장


상 화 상임부회장

언 태 총무이사대행


재 서 재무이사


광 섭 문화이사

청송심씨 6세조 정이공(휘: 決)파 어비리종회 신축건물 준공식 거행

청송심씨정이공파 어비리종회에서 지난 6월28일 대지 307평에 건평1022평의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정이공파어비리종회의 숙원사업이던 종친건물은 앞으로 종회의 운영은 물론 종원을 위한 유용한 재원의 초석이 될 것이다.

정이공종회는 대종회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발전적인 조언을 하고 있으며 특히 종원들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 모범 종회이기도하다.

준공된 건물 전경 사진
대지 307평
건평 1,022평
지하1층, 지상6층

준공테이프 컷팅 장면
왼쪽 네번째부터 회장 석용, 안효공종회회장 명옥, 대종회회장 갑보,어비리종회부회장 응하, 안효공종회부회장 무섭,어비리종회고문 응탁

축하합니다

정이공파 어비리종회(六世祖 諱:決) 정기총회 개최

신임 **석문** 회장

지난 7월26일 정이공파 어비리종회(6세조 諱:決)는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새로운 집행부의 회장은 대종회 이사이시며, 종보 편집위원이신 석문님이 당선 되셨습니다.

진주종회 임원개선

회 장 : 윤수 **부회장** : 주섭
총 무 : 만용 **감 사** : 길수

2014년 6월 21일(토) 仁川宗會 제45次 定期總會
4世祖 청성백 묘소 參拜 記念

일가들의 단합모임

청성백 묘소 잡초제거 작업을 마친 일가들의 기념사진촬영

7월 6일(일) 일가들끼리 4세조 청성백 선조님 묘역의 잡초를 뽑으며 우의를 다지는 일석이조의 자리였다.

법곳종중, 정랑공종중 임원과 대종회 삼규, 용규 이사님 등 15명은 오전 11시에 시작하여 섭씨 36도를 넘나든 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점심시간도 잊은 채 오후2시에 풀 뽑기 작업을 끝냈다.

잡초가 제거된 푸른 잔디의 청성백 묘소를 보니 마음 뿌듯하였다.

정성어린 종보찬조금 전달

청송심씨의 유일한 소식지인 종보찬조금을 기탁하며 좌로부터 용규이사, 웅섭 공숙공회장, 상화 대종회상임부회장, 언태 총무이사, 재서 재무이사, 광섭 문화이사

6세조 기준으로 최다수의 종원으로 구성된 공숙공종회(전국종원의33% 점유)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 웅섭회장께서는 평소 대종회의 발전과 종원들의 화합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는 훌륭한 분이시다.

매년 장학찬조금과 종보찬조를 기탁해 주시면서 집행부를 격려해 주시는 웅섭회장님께서 이번에 또 종보찬조를 해주셨다. 성심껏 찬조해 주시는 공숙공 종회에 보답하는 길은 집행부에서 배전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지 사 항

1. 지로 종보찬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전국 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로용지는 연 2회 발송하며 다음 지로용지는 11월호 종보에 함께 동봉합니다. 지로 종보찬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발적 참여임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2. 종보에는 종회탐방, 종인소개 등 고정코너가 있습니다. 탐방을 희망하시는 종회와 모범종인 등 전국 종인에게 널리 알릴 종인이 계시면 대종회 문화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각종 찬조금, 임원회비 명세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재무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대종회에서는 대동세보(10만원), 수권속편. 세고선. 홀기. 종보축소판1(4종세트로5만원), 종보축쇄판2(1만5천원), 배지 20개(10만원) 이외에는 보급하는 것이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종보 수령을 원하시는 종인들께서는 대종회 전화나 팩스로 성명, 신주소를 알려주시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주위 일가 여러분께 많이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2014년분 임원회비(이사5만원, 부회장30만원, 감사20만원)를 미납하신 임원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2년에 구축된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방법 개선사항.**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열린마당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종전에는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신분확인이 안되는 폐단이 있어 이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성지역의 임원을 새롭게 구성

대종회는 안성지역의 前 유사들의 부실한 종재관리를 개선하고자 2013년부터 안성지역의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여 대종회 종재(宗財)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안성 임원진은 일용 대종회부회장, 철유 유사, 흥주 관장, 진유 이사, 영주 이사 등이며, 안성의 경주, 호섭, 정섭 종인 등은 대종회 임원에서 퇴출시켜 종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5처 墓所 유사, 관장 성함 및 연락처

處	職	名	無 線	有 線
청송	관장	재홍	018-505-7611	054-873-6502
〃	유사	원섭	011-9008-6648	054-874-6648
〃	유사	상철	010-7543-3594	054-872-3592
덕천	유사	홍섭	010-7194-0956	054-873-0956
함열	유사	정수	010-8311-6429	063-858-5008
철원	유사	상국	010-3247-9933	033-455-2011
안성	관장	흥주	010-8334-9845	031-672-9845
〃	유사	철유	010-3399-2586	031-677-2586
연천	유사	홍섭	010-4056-8307	
청주	관장	재혁	010-6521-3104	043-213-7555
〃	유사	재룡	011-8847-1589	043-256-1589

| 송 | 금 | 안 | 내 |

任員會費·宗報贊助·獎學贊助·族譜代金 등 입금구좌
청송심씨대종회
농협 : 301-0107-5873-71